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요 4:7-14)

이종윤 원로목사



사막에서는 물을 얻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물을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베뢰아 지방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 1. 장벽을 초월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목마른 길, 고통스러운 길, 사막 길, 안타깝고 어려움이 많은 사마리아 여행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얼마나 희생과 수고를 했으며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희생이 없는 제물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피곤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접근하셔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여인과의 대화는 처음부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쉬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책을 읽게 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그릇을 함께 쓰지 않습니다. 개밥 그릇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을 천하게 여긴 유대인들은 그들이 먹는 그릇으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주는 물을 지금 마신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을 동네까지 파송 한 것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과 상종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교제할만한 사람들과만 교제합니다. 기독교인도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교파 문제에서 우리는 매우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사회적 장벽과 종교적 장벽을 깨뜨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 2. 생수를 주리라

요 4:10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선물이요, 이 선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① 생수는 성령을 말합니다.

요 7:38, 39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생수는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을 가리킵니다.

②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10절)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 3. 종교적인 탈을 벗다

영적인 일에 관심조차 갖지 못한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을 선생님 이상으로 보지 못한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이 민족의 위대한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하단 말입니까?"라고 힐난과 분노가 섞인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죽은 사람만 자랑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보다 권위 있고, 죽은 전통이 오늘의 삶보다 더 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지금까지의 전통과 유산을 송두리째 버리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껍질, 곧 종교적인 탈을 벗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 4. 야곱의 우물과 생수의 대조

야곱의 우물은 마시고 나면 다시 갈증이 생기는 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솟아나는 샘물이어서 영원히 갈증이 없습니다. 생수를 마시면 구원만 되는 것이 아니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요 10:10).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혼이 풍성하고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서 여기에 오는 자마다 마음껏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20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6월 18일(목) ~ 6월 25일(목) 새벽 05:00 ~ 06:00

요일별 주력교구 참석 / 강사 : 서창원 목사

< 특별새벽기도회 요일별 주력교구 >

날짜/요일	교 구	날짜/요일	교 구
6.18(목)	1,2,3,4,5,13 교구	6.22(월)	1,2,3,4,13 교구
6.19(금)	6,7,8,9,14 교구	6.23(화)	6,7,8,9 교구
6.20(토)	10,11,12,15,16 교구	6.24(수)	5,11,16 교구
6.21(주)	주 일 예 배	6.25(목)	10,12,14,15 교구

2020 흥해작전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올해 흥해작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점에서 시작하였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목요일부터 서창원 목사를 강사로 특별새벽기도회가 새벽 5:00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모인다. 요일별 주력교구는 위 표를 참조하기 바라며 주력교구일이 아닌 새벽에는 온라

인 예배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

새벽기도회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와 교회, 그리고 개인 앞에 놓인 기도제목을 붙들고 아침 10시 오후 10시 하루에 두 번씩 기도하여 모든 성도가 모두 흥해를 건너기 바란다.

또한 2020 흥해작전 본부(부장 : 오광환 장로)에서는 이번 기간동안 각 처소에서 새벽기도회에 온라인 예배로 참가하는 인증 샷과 글 등을 모집하고 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

### 화재로 전소 된 서울동북노회 싸릿골교회(이석범 목사 시무) 돕기로

당회는 지난 6월 10일(수) 6월 정기당회를 열고 서울동북노회가 피해복구 지원요청을 한 서울동북노회 소속 싸릿골교회를 돕기로 하였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위치한 싸릿골교회는 이석범 목사가 지난 1993년 개척했으며 건축할 당시 무교회지역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하며 조용하지만 꾸준히 지역 복음화 사역에 앞장서 왔으나 지난 4월 12일 부활주일 새벽 3시경 전기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예배 본당과 교육관이 전소하였다.

서울교회는 '선교(Evangelism)'와 '교육(Education)'과 '구제(Expenditure)'를 '서울교회의 세 기둥'으로 칭하고 이 세가지를 설립 이념이며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농어촌100교회 후원, 선교사 파송 등을 힘써 왔으며 교회가 어려워진 후에도 이 '농어촌100교회운동' 후원과 선교사 후원을 멈추지 않고 있다.



...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  
 "

(딤후 5:10)

▶ 전기누전 화재로 전소된 싸릿골교회 예배 본당과 교육관



##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재윤·이용자 전성희 윤종현 안흥희·전화진 김희창·조미현(호산나대학) 송재현·선순례 박성국·백정숙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현금을 온라인계좌로 입금하시는 성도들께

현금입력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착오가 없도록 입금하실 때 성명과 현금명목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입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자가 6~7자가 입력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회복기금 계좌와 다름으로 교회에 문의 바랍니다.

- 예) 흥길동십일조
- 흥길동선교
- 흥길동주일
- 흥길동비전
- 흥길동지원교회
- 흥길동특별

## 주일 1부 예배 피아니스트 임명

교회는 1부 예배 피아니스트 박승기 집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정혜은 선생을 주일 1부 예배 피아니스트로 임명하였다. 정혜은 선생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정혜은 선생

- 정혜은 선생(1989년생)
- 한양대학교 졸업
-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석사과정 졸업
-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슈투트가르트 한인선교교회 본 예배 반주자
- 순복음강남교회 수요일예배, 호산나성가대 반주자
- 성동교회 2부 예배 및 미가엘성가대 반주자

# 개어 기도합시다



한상준 집사  
(2020 흥해작전 찬양팀장)

세상을 보면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듯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모든 것이 마비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나라도 그로 인해 앞일을 걱정하는 마음이 여기저기에서 탄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벧 4:6)로 하나님께 아뢰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는 신앙인이 불과 1%도 안되는 적은 인원에도 모든 부분에서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고, 대한민국 탄생 시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0만 명 이상의 신자가 있다고 숫자적으로 자랑해 온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단체를 대신하는 노회도 그들의 기득권을 앞세워 거짓말도 서슴치 않고 부끄러움을 잊은 채 그들만의 아성을 쌓아가고 있고,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며 심지어 동성애를 지지하기도 하는 신학교는 거짓 목사들을 양산하여 목회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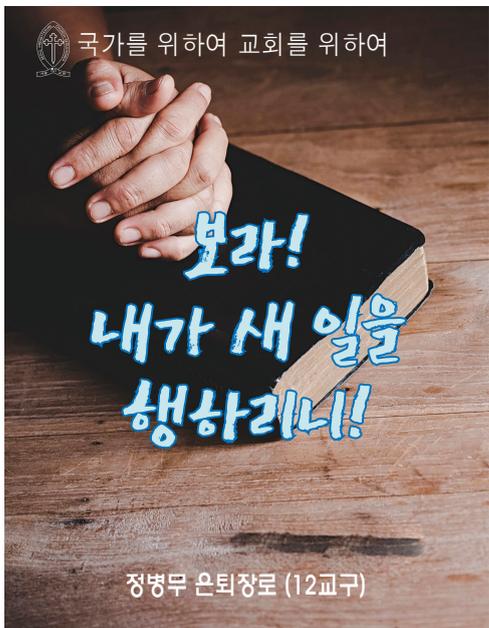
어느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스스로가 판단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된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인터넷 예배의 유혹에 점점 빠져들어 교회를 통한 공동의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 점점 나만의 매너리즘에 빠져 스스로 합리화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회에서는 “흥해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새벽 5:30분에 온라인 새벽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고, **매일 열열히 (아침 10시, 밤 10시) 합심기도**에 잊지 말고 동참해 주십시오.

특히 흥해작전 마지막 주간은 **특별새벽기도회로 6.18(목) ~ 6.25(목)에는 요일별 담당교구**에 해당되는 성도님들은 이 기간만이라도 **교회에 꼭 참석하셔서 ①흥해작전 공동 기도제목 ②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③개인의 문제를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에 모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최대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서울교회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어려움과 위기,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금번 흥해작전 기간 동안에 적극 참여함으로 모두가 흥해를 건너, 목표는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흥해작전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께 고함으로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교만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듯이 지금 이 세상도 이 나라도 온갖 탐욕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본주의와 결합한 물질주의에 빠져 허덕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산화(散華)한 순교선열들을 추모하며 저들이 뿌린 피의 터전 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을 꽃 피우고 있으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로 씌어질 것을 벗어 버리고 씌지 않을 것을 보게 하옵소서. 창조와 섭리의 권능으로 이 나라를 역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경제·문화·사회를 온전케 하사 세계복음의 중심국가로 남은 그루터기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 주고 사신 서울교회에 지난 3~4년을 연단계 하셨지만 사랑의 채찍으로 믿게 해 주시고 또한 거듭난 믿음으로 성숙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무사안일에 깨어나지 못한 우리들을 기드온 삼백용사로 쓰시려고 모진 시련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을 보여 주시니 여호와 너의 때가 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미결로 남아있는 사회법의 송사건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판결되어 영광 돌리게 하시고 상회(노회와 총회)를 흔들고 있는 잘못된 정치 목사, 삿꾼 목사, 거짓 목사들에게 경종이 되게 하옵소서. 노회는 이제라도 진리로 돌아와 거짓 목자의 탈을 벗게 하시고 상회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법 절차에 따라 임시 당회장을 하루속히 파송하여 합법적인 당회구성으로 온전한 회복의 때를 속히 보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의 분쟁 회복사가 표본이 되어 한국의 교계에 생수가 되어 날로 세속화되고 있는 이 나라의 교계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렘 33:3)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애소(哀訴)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억압에서 자유로, 주림에서 배부름으로, 험벗음에서 따뜻함으로 인도해 주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가슴이 저려 오는 아픈 현실에 주님의 백성들이 실족치 않게 하시며 영안을 열어 주시고 신령한 귀로 듣게 하시며

故 김희창 군을 추모하며

# 하나님의 품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남겨



故 김희창 군은 대구자연과학고를 졸업한 지난 2015년 호산나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기숙사에서의 떨리는 첫날을 시작으로, 소극적이고 자신감도 부족했던 김희창 군은 주님의 사랑과 호산나의 격려 속에 나날이 성장하였습니다.

재학 중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후배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사랑부 소속으로 활동하며 서울교회와의 특별한 인연도 맺었습니다.

3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취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2017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8년 3월, 당당히 서초참요양병원에 취업하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자립적인 성인이자 훌륭한 직장인으로 성장한 김희창 군은 호산나대학의 자랑이자 귀감이 되는 선배였고, 사랑부 활동과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취업 후에도 호산나대학과 맺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8개월째 일을 하던 2018년 12월, 김희창 군은 갑작스런 암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넘는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속에서도 김희창 군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다시 취업하려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도 찾아와 후배들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 김희창 군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희창 군의 부모님은 지난 5월, 호산나대학에 김희창 군의 이름으로 2,0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김희창 군의 부모님이 호산나대학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고 김희창 군(왼쪽)

기부를 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 2015년 2,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기부를 해왔습니다. 부모님은 “확장시절 외롭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희창이가 호산나를 만나 함께 즐거움을 나눌 친구가 생기고, 고민을 나누고 의지할 선생님이 생기고, 설레는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다. 호산나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주님과 희창이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준 호산나대학에 감사하다. 자랑스러운 호산나인이 되겠다는 희창이의 꿈이 후배들을 통해 이어져 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산나대학은 김희창 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전달받은 기부금으로 노인요양보호사 후배양성을 위해 노인케어실을 확장·이전하고 ‘김희창 강의실’로 명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족의 동의를 얻어 3년간 김희창 군이 신앙생활을 한 서울교회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김희창 군의 이름으로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 동정

- 이준용 원로목사는 6. 21(주) 오후 4시 동대천교회(총합 보령시 돈비탕길15 이규정 목사 시무) 설립 25주년 및 새예배당 입당 감사예배에서 설교한다.
- 득녀 : 6월 6일 안지은 성도 임인근 성도 가정 (11교구 안인호 장로·이명신 권사 장녀)
- 득남 : 6월 8일 백성은 성도 김경석 성도 가정 (7교구 백승갑 집사·박길자 권사 장녀)



김희창 강의실 명판(위)  
김희창 강의실 전경(오른쪽)



## 전교인 성경읽기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일 자	요일	교구(부서):		이름: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15일	월	시 32-35		고전 12-16	
6월16일	화	시 36-39		고후 1-13	
6월17일	수	시 40-44		갈 1-6	
6월18일	목	시 45-50		엡 1-6	
6월19일	금	시 51-56		빌 1-4, 골 1-4	
6월20일	토	시 57-62		살전 1-5, 살후 1-3	
6월21일	주일	시 63-68		딤펴전 1-6, 딤펴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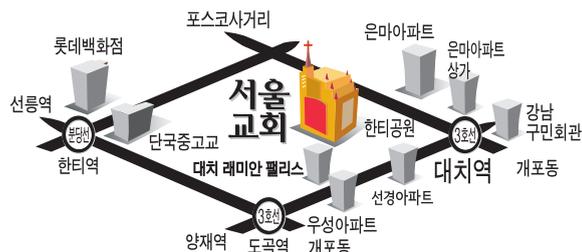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6월 6일(토)-17일(수) 새벽 5시 30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흥해작전 새벽기도회와 18일(목)-25일(목) 새벽 5시 교회에서 모이는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앞에 있는 흥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2.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3.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